아리타 우치야마 역사 지구

17 세기 중반부터 아리타 지역의 자기 산업은 우치야마가 중심이 되었습니다. 우치야마는 에도 시대(1603~1868)에 아리타 지역의 장인들이 주로 자기의 석재를 조달한 이즈미야마의 채굴장과 가깝습니다. 아리타 도자기의 유명한 도자기 공방 대부분은 우치야마에 있으며, 에도 시대에는 이 지구로 출입하는 것이 사가번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.

1828 년 분세이 대화재 때 우치야마의 건물은 대부분 전소되어 버렸습니다.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은 불과 1 채뿐입니다. 이후 1 세기 반에 걸쳐 일본의 전통 양식과 서양 양식을 조합한 건물이 세워졌고, 1991 년에는 일대가 국가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. 2024 년 기준으로 이 지구에서는 에도 시대(1603~1868) 말기, 메이지 시대(1868~1912), 다이쇼 시대(1912~1926), 쇼와(1926~1989) 초기의 역사적 건조물 164 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. 보존지구에 있는 각 건조물에는 청화백자 자기로 만들어진 작은 명판이 달려 있으며, 명판에는 건축 연도나 시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.

역사적 건조물 대부분은 카페와 갤러리, 상점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. 이 지구에 있는 유명한 도자기 공방 중에는 쇼룸과 오래된 컬렉션을 보유한 박물관 등도 포함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아리타 도자 미술관과 구 다시로 가문 서양관도 이 우치야마 지구에 있습니다. 아리타 도자기 시장의 일부도 매년 4 월 29 일~5 월 5 일에 걸쳐 우치야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